

어명소 제2차관, “광주를 미래차 산업 으뜸 도시로”

-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추진, 29일 미래차 비전선포식 참여 -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월 29일(수) 오후 2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광주 미래차 비전선포식」에 참석하였다.

○ 이 자리에는 어명소 차관을 비롯하여 민형배, 이형석, 양향자 국회의원과 광주 강기정 시장이 함께 참석하였고, 기아차 최준영 대표이사, 아마존 웹 서비스(AWS)의 웬디 바우어(Wendy Bauer), 구글의 파울 윌슨(Paul Wilson)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, 유관기관 등 총 160여 명이 참석*하여 비전선포식을 더욱 뜻깊게 하였다.

* (기조연설) AWS의 Wendy Bauer(제너럴 매니저), 구글 Paul Wilson(총괄이사)
(주요인사) 민형배, 이형석, 양향자 국회의원,
기아자동차 최준영 대표이사,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등

□ 이날 선포식에서 어 차관은 “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등 대변혁이 진행되는 이 시기에 광주가 신규 미래차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”면서,

○ 정부는 이를 통해 “전기차·자율차 등 미래차 전후방 연관 산업을 집적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”고 밝혔다.

○ 또한, 이를 위해 “광주시, 지방공사 등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도 4월 중 신속하게 선정하고,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조속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이며,

○ 그린벨트 해제, 농지전용, 환경·교통·재해 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완료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□ 아울러, 어 차관은 ”산업부, 광주시와 협력하여 충분한 인프라와 벤처기업, R&D, 인력양성 등 산업생태계를 형성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,

- 상무지구의 도심융합특구,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, 광주 송정역 투자 선도지구 등 도심 내 혁신거점과도 연계 조성하여 거점 간 상호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”며,
- “신규 국가산단과 빛그린 산단에 결집된 광주의 자동차 산업 잠재력이 우리나라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를 달성하는데 중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밝혔다.

2023. 3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